

Onnuri
Community Church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6주차

2017.10.16 - 10.21

비상(飛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협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젓과 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 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 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애의 나락입니다.
비상(非常)은 비상(飛翔)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소서.
날게 하소서.....

뒤쳐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 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 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李 御 寧

9월 11일(월) - 10월 21일(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기도에 참여

참여하는 방법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메인 배너를 클릭해서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거나
문자메시지(1666-2549)로 이름, 메일, 공동체, 금식 일정을 보내주시면
홈페이지 금식기도 참여자로 등록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 가이드

1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2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3

순서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세 번 이상 기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큐티시간/ 식사시간/ 잠자기 전)

매일 저녁 10시에 전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체크표

	아침	점심	저녁
10/16 월(Mon)			
10/17 화(Tue)			
10/18 수(Wed)			
10/19 목(Thu)			
10/20 금(Fri)			
10/21 토(Sat)			

오늘의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통519 새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창세기11:4-5,8)

1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보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무감각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흠으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북한 지도자들의 교만한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무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2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선동과 공작이 멈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우리 민족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적극적인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3:23)

3

한국 교회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세상의 관습들과 가치들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4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물질의 탐욕과 권력의 욕망,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주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화요일

오늘의 찬송 '주께 가오니' 새172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33:15-16)

1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히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법을 탐구해 나가는 한편 따뜻한 가슴으로 정의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는 법조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계부채 1천조, 하우스푸어 150만명 시대 속에서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진 자들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탐심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멈추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금융정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올바른 소명의식을 가진 기업가들, 사업가들, 자영업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속이는 저울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하게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네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입을 채워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103)

4

교회 안에 실버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은 쇠하여지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실버세대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그들이 모세처럼 민족을 위한 거룩한 증보기도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선배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수요일

오늘의 찬송 '주 여호와와는 광대 하시도다' 새360

주 여호와와는 광대 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창세기39:21-22)

1

청년들이 소명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물질이나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소명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신명기4:1)

2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육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교육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학생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바로잡아 지기를 기도합니다.

3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학생들을 더 깊은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넓은 품과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

교회가 음란한 문화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낙태, 살인, 음행, 폭력 등으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을 막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음란한 문화들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요일

오늘의 찬송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2:3-5)

1

기독교 NGO(비영리시민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통일 등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 NGO들이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NGO 대표들과 사역자들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간구합니다. 온누리교회의 NGO '더 멋진세상'을 통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모든 이웃들에게 도움과 정의와 화해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2:1-2,15)

2

성도들의 말과 언어생활이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한 일들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언어 속에서 악의와 거짓,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말, 부정과 절망을 주는 말을 멈추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말 그리고 감사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우리 민족 안에 있는 허례허식 문화가 바뀌어 지길 기도합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낭비하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허례허식 문화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검소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서도 낭비와 사치, 허례허식 문화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24:1, 5)

4

안티기독교 단체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금요일

오늘의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507 새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2:9)

1

가정교육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신앙 공동체, 사랑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회복되어 부모와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바른 인성이 키워져,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길 간구합니다.

2

통일시대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자들이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미래의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육자들과 성경적 교육과정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들과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돕는 손길들이 모아지고, 통일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중보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통일한국 경제정책과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인들이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통일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의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토지, 자본, 노동정책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이 담긴 정책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경제인들이 준비되기를 간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사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35:1-2)

4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사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살인, 약탈하는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배고픔과 억압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으로 지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토요일

오늘의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이집트가 한 것처럼, 앗시리아가 막대기로 너희를 치고 몽둥이를 너희에게 치켜들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10:24)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잠언 3:7)

1

이 땅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전쟁의 소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평화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홀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잠언 8:13)

2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들을 추구하며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크리스천 여성들이 돈, 패션, 부동산, 남편의 지위, 자녀의 성적과 성공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세상의 풍습에서 돌이키고, 크리스천 남성들이 사회적 성공, 소유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낮아지심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3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민족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마다 예배하며 마을과 도시 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모세와 에스라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영적지도자,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술선수범하는 정치 지도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든 영역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언더우드선교사의 기도문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한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 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불 길이 없으니
어찌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